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행복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어 보며 가족 모두 함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23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심'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실패하였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때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 8:4)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야 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자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건져주심'입니다(24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대적에게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먹여주심'입니다(25절).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먹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전 3:13)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알기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26절).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추석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초청 ----- 다 함 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찬 송 --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다 함 께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기 도 ----- 말 은 이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셨던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시고, 믿음의 깊이가 날로 견고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36:23~26 ----- 인 도 자

-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 멘.

말 씬 ----- 감사가 넘치는 가정 ----- 인 도 자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 함 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추 모 사 ----- 가족대표

추석 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 다 함 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2025년도 추석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